

초기 성인기 대학생의 융복합 기반 안전한 성행동 경로모형

서영숙*, 권영채**

대구보건대학교 간호학과*, 가야대학교 간호학과**

A Path Analysis of Variables Influencing convergence-based Safer Sexual Behavior of Early Adults

Young-Sook Seo*, Young-Chae Kwon**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Daegu Health College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Kaya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초기 성인기 대학생의 자아존중감, 부모와 대학생 자녀 간의 의사소통과 성적 자기주장이 융복합 기반 안전한 성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안전한 성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성적 자기주장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고자 시도하였다. 자료수집은 3개 대학교의 재학생 291명을 대상으로 2016년 3월 1일 부터 4월 31일 까지 실시하였으며, 설문지를 이용하였다. 자료분석 방법은 SPSS WIN 21.0과 AMOS 18.0 programs을 이용하여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최종모형의 적합지수는 RMSEA .05, GFI .98, AGFI .94, NFI .96 이었고, 자아존중감과 부모와 자녀 간에 성에 대한 의사소통은 성적 자기주장과 안전한 성행동에 직접효과가 나타났다. 성적 자기주장은 자아존중감과 부모와 자녀 간에 성에 대한 의사소통과 안전한 성행동 관계에서 부분 매개효과가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초기 성인기 대학생의 안전한 성행동을 향상시키기 위해 긍정적인 자아존중감 형성과 개방적인 부모와 대학생 자녀 간 의사소통과 성적 자기주장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을 제언한다.

주제어 : 성행동, 자아존중감, 성적 자기주장, 성에 대한 의사소통, 대학생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understand self-esteem, sexual communication for parents, sexual assertiveness, and safer sexual behavior and. to examine the mediating effects of the sexual assertiveness on the safer sexual behavior of early adults. A structured questionnaire was completed by 291 university students from March 1 to April 31, 2016. Data were analyzed to calculate the direct and indirect effects of factors affecting safer sexual behavior using SPSS WIN 21.0 and AMOS 18.0 programs. Final model fit indices were RMSEA .05, GFI .98, AGFI .94, NFI .96, and self-esteem, sexual communication for parents showed a direct effect on sexual assertiveness and safer sexual behavior of university students. Sexual assertiveness mediated the relationships among self-esteem, sexual communication for parents, and safer sexual behavior. Furthermore, it is shown that the sexual assertiveness significantly mediates the relation between the positive self-esteem, sexual open communication for parents and safer sexual behavior of early adults.

Key Words : Sexual behavior, Self-esteem, Sexual assertiveness, Sexual communication, Students.

Received 31 May 2016, Revised 30 June 2016
Accepted 20 July 2016, Published 28 July 2016
Corresponding Author: Young-Chae Kwon
(Department of Nursing, Kaya University)
Email: nahante55@hanmail.net

ISSN: 1738-1916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오늘날 우리사회는 통신수단과 영상매체의 눈부신 발달로 다양하고 자극적인 성과 관련된 매스미디어에 노출되고 있다. 특히 대학생은 많은 시간을 매스미디어와 접촉하면서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이때 다양한 성 매체물의 노출과 접촉은 대학생의 성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1,2,3]. 또한 대학생은 신체적 성장의 완성 단계로 성적 잠재기를 벗어나 성관계가 시작되는 시기이다[4,26]. 게다가 부모와 사회로부터 자유를 부여받은 시기에다 이 성교체가 자유롭게 허용됨에 따라 다른 성인기에 비해 충동적으로 성행동을 선택하게 된다. 이 시기에 자신의 성적욕구와 성행동의 조절능력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성병감염 및 원치 않는 임신 등의 증가로 생식건강의 위협을 초래하므로[5,6,7], 성행동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세워주는 것이 필요하다[1].

이에 우리사회에서는 대학생을 포함한 남녀 성관련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대학생 대상으로 성 실태 조사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성에 대해 84%가 개방적이고, 남학생의 50.8%, 여학생의 19.0%가 성경험자이고, 또한 성경험자들 중에서 50% 이상이 성병과 9.4% 이상이 임신경험자이었고, 임신경험자 중에서 낙태경험자는 78.1%로 보고하였다[4]. 한편 이들의 피임실천율은 남학생이 32.7%, 여학생이 45.5%로 남녀 모두 피임의 실천율은 50% 미만이었다[1]. 한편 국외에서는 34.6% 성경험자이고, 성경험자들 중에서 52.6%가 피임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었다[24]. 이처럼 국내외 대학생들은 성에 대해 개방적이고 빈번하게 성관계를 하고 있으나 성관계에 따른 원치 않는 임신, 성병, 낙태 등의 다양한 성 건강의 위협에 처해 있는 실정이다[4,23]. 따라서 급변하는 사회 속에 성장하는 대학생의 성문제에 대한 연구는 꾸준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8], 또한 반복연구를 통하여 급격히 변화되는 대학생의 성행동을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1].

지금까지 국내외 대학생의 성행동에 대한 관련요인으로 성경험과 성지식, 실태조사[4], 성별[5,6], 자아존중감[9,10,11], 성적 자율성[9], 성적 자기주장[9], 성 주체성[9], 인터넷 음란물 중독 정도[6,12], 부모와 자녀 간의 성에 대한 의사소통[12], 가족의 지지[24] 등과 같이 다양한 요

인들이 제시되고 있다.

성행동의 관련 변인 중에서 자아존중감은 자신에 대한 가치부여의 심리적 변수로써[14], 성과 관련된 자기주장[15]과 성행동[6] 등 발달적 변화에 주요한 요인으로 역할을 한다. 자신의 존재가치를 높이 인식하게 되면 파트너와의 성관계에서 성적 의사를 분명히 주장하고, 결국 안전한 성행동을 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6].

의사소통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 등을 전달하는 매개체로써 부모와 자녀 간의 의사소통은 자녀의 성격과 행동양식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작용을 한다고 하였다[13] 이처럼 부모와 자녀 간의 성에 대한 의사소통은 자녀의 성지식뿐만 아니라 성태도, 성정체성, 성적 자율성, 성적 자기주장, 성행동에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된다[13]. 즉, 부모와 자녀 간의 성에 대한 의사소통을 많이 할수록 성적 자기주장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15], 위험한 성행동이 감소되었다고 하였다[6]. 이는 부모와 자녀 간의 성에 대한 개방적인 의사소통이 자녀의 성적 자기주장과 안전한 성행동에 직접적 작용을 하게 됨을 알 수 있다.

성적 자기주장은 성적인 상황에서 자신의 감정을 인지하고 조절하여 자신의 느낌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다[16]. 또한 성적 자기주장은 어떤 상황에서도 합리적인 성적 자기결정과 성적 자율성이 내재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효과적인 의사소통 기술로써[17], 성적 상황에서 주체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9,16,17]. 이처럼 성적 자기주장은 원하는 성행동과 원하지 않는 성행동을 조절하는 주요요인으로 관심을 받고 있다[15]. 특히 성행동이 빈번한 시기의 대학생에게는 성적 자기주장은 무엇보다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변수이며, 다양한 성교육 프로그램과 연구에서 강조되어야 한다[18].

이상의 선행연구에서 대학생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성적 자기주장의 정도가 높아지는 결과[15],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위험 성행동의 정도가 낮아지는 결과[6], 부모와 자녀 간의 성에 대한 의사소통이 많을수록 성적 자기주장의 정도가 높아지는 결과[14,19,27] 부모와 자녀 간의 성에 대한 의사소통이 개방적일수록 위험 성행동의 정도가 낮아지는 결과[13], 그리고 성적 자기주장의 정도가 높을수록 성행동이 높아지는 결과[9]에서 대학생의 자아존중감 및 부모와 자녀 간의 성에 대한 의사소통은 성행동에 직접적인 인자로 작용함을 예측할 수 있고, 성적 자기주장은 자아존중감과 부모와 자녀 간의 의사소통

과 안전한 성행동 간의 관계에서 직접효과 및 매개효과를 통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지금까지 대학생 성행동의 국내외연구들은 성행동과 관련변인 간의 단순상관[14,24]이거나 관련변인 연구 [5,27]가 대부분이며, 국외연구에서 성행동 모형을 검증하고 위험 성행동 관리를 위한 효율적인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25]. 그러나 대부분 성행동 관련하여 변인들 간의 인과관계가 어떻게 설정되는지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므로 선행연구를 토대로 가설적 모형을 구축하여 변수들과의 성행동의 관계를 통합적으로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이 지각하는 자아존중감 및 부모와 대학생 자녀 간의 의사소통이 성적 자기주장과 성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자아존중감 및 부모와 대학생 자녀 간의 의사소통이 성행동 관계에서 성적 자기주장의 매개효과를 규명하여 대학생의 안전한 성행동을 위한 성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경로분석을 통해 대학생의 자아존중감, 부모와 자녀 간의 성에 대한 의사소통과 안전한 성행동 간의 관계에서 성적 자기주장의 직접효과 및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의 자아존중감, 부모와 자녀 간의 성에 대한 의사소통, 성적 자기주장과 안전한 성행동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한다.

둘째, 대학생의 안전한 성행동에 미치는 성적 자기주장의 역할을 확인하기 위해 자아존중감, 부모와 자녀 간의 성에 대한 의사소통을 외생변수로 하는 가설된 경로모형을 구축하여 경로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한다.

셋째, 구축된 경로모형의 검증을 통해 대학생의 안전한 성행동에 미치는 제 변수들의 직접효과 및 성적 자기주장의 매개효과에 대한 차이를 확인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횡단적 조사연구로서 대학생의 안전한 성행동에 관한 가설적 경로모형을 구축하고 실제적 자료를

바탕으로 구축한 가설적 모형의 적합정도 및 효과를 규명하기 위한 공분산경로분석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대상자를 윤리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K대학교의 기관윤리심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77)의 승인을 받았으며, 본 연구의 대상자는 K시와 D시에 소재한 3개교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의 목적과 방법, 익명성 보장, 자발적인 연구 참여 동의 및 거부 등을 설명하고 서면동의를 받은 대학생 30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 수집은 2016년 3월 1일부터 4월 31일까지 실시하였으며,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하였다. 조사에 소요된 시간은 약 20분이었다. 수집된 자료 중 응답이 불완전한 것을 제외한 291부를 분석대상에 포함하였다. 본 연구의 표본크기는 공분산경로분석에서 추정모수치의 10배 이상을 권장하므로 표본크기 조건을 충족하였다.

2.3 연구도구

2.3.1 안전한 성행동

안전한 성행동은 Dilorio 등[20]가 초기 성인기를 대상으로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으며, 이 도구는 총 22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응답의 범위는 ‘전혀 하지 않는다’ 1점에서 ‘언제나 한다’ 4점까지의 Likert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안전한 성행동을 실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Kim [16]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가 .74이었고, 본 연구에서 .77이었다.

2.3.2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은 Rosenberg [14]가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으며, 이 도구는 총 10문항으로 부정적 문항들은 역산하여 처리하였다. 응답의 범위는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4점까지의 4점 Likert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의 정도가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Cronbach's α 는 .85이었고, 본 연구에서 .86이었다.

2.3.3 부모와 자녀 간의 성에 대한 의사소통

부모와 자녀 간의 성에 대한 의사소통은 Hutchinson과 Cooney [21]가 개발한 도구를 Park과 Kim [13]이 타당도를 검증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12문항

으로 응답의 범위는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의 5점 Likert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와 자녀 간의 성에 대한 의사소통의 정도는 개방적임을 의미한다. Park과 Kim [13]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가 .85~.89이었고, 본 연구에서 .87이었다.

2.3.4 성적 자기주장

성적 자기주장은 Morokoff 등[22]이 개발한 도구를 Lee와 Lee [17]가 한국형 성적 자기주장 도구로 재구성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21문항으로 부정적 문항들은 역산하여 처리하였다. 응답의 범위는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의 5점 Likert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성적 자기주장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Cronbach's α 는 성행동의 시도 .74, 원치 않는 성행동에 대한 거부 .63, 임신 및 성으로 감염되는 질병에 대한 예방 .73, 의사소통기술 .63이었고, 본 연구에서 각각 .74, .70, .73, .70, 전체는 .73이었다.

2.5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분석은 SPSS/WIN 21.0 program과 Amos 19.0 program을 이용하였으며,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측정변인들의 빈도, 백분율, 평균 및 표준편차는 기술통계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변인들 간의 관련성은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둘째, 모형의 구조 경로에 대한 유의성 검증을 위해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을 이용하였다. 모형의 적합도는 절대적합지수인 카이제곱비 통계량(χ^2/df), 간명적합지수인 근사오차 평균제곱의 이중근(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RMSEA), 조정적합지수(Adjust goodness of fit index, AGFI) 증분지수로 비교적합지수(Comparative Fit Index, CFI)와 표준적합지수(Normed fit index, NFI)를 구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 성별은

'여성'이 83.9%, 연령은 '20세 미만'이 32.0%, '종교가 있는 경우'가 24.1%, 학업성적은 '보통'이 52.5%, 거주형태는 '가족과 동거'가 37.1%, 경제적 상태는 '보통'이 45.7%, 이성친구 여부는 '현재 있다'가 42.3%로 나타났다<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291)	
Characteristic	Categories	n	%
Gender	Male	47	24.1
	Female	244	83.9
Age	<20	93	32.0
	≥20	198	68.0
Religion	Yes	70	24.1
	No	221	75.9
Grade	1st	128	44.0
	2nd	120	41.2
	3rd	43	14.8
Academic achievement	High	68	23.4
	Middle	153	52.5
	Low	70	24.1
Residence type	With family	108	37.1
	Other	183	62.9
Economic condition	High	46	15.8
	Middle	138	45.7
Opposite of sex friend	Low	112	38.5
	Yes	123	42.3
	No	168	57.7

3.2 연구변수의 기술적 통계 및 상관관계

본 연구의 가설적 모형에서 사용된 변수의 서술적 통계를 분석한 결과, 왜도(skewness)와 첨도(kurtosis) 값이 절대값 2를 넘지 않았으므로 정규성을 이룬다는 전제 하에 최대우도법을 사용하여 모델적합도 및 모수치를 추정하였다.

또한 변수간의 상관관계, 평균 및 표준편차를 분석한 결과, 대상자의 자아존중감, 부모와 자녀 간의 성에 대한 의사소통, 성적 자기주장과 안전한 성행동 간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자아존중감은 3.20점/5점, 부모와 자녀 간의 성에 대한 의사소통은 2.13점/4점, 성적 자기주장은 2.69점/5점과 안전한 성행동은 3.00점/4점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 다중공선성의 검증 결과, 모든 변수 간의 상관관계수가 .73을 넘지 않았고, 공차한계(Tolerance limits)는 .51-.89로 모두 0.1 이상이고, 1.0을 넘지 않았으며, 분산팽창인자(Variance Inflation Factor, VIF)은 1.11-1.26으로 기준인 10을 넘지 않아 본 연구의 측정 변수들의 다중공선성은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Table 2>.

<Table 2> Correlations, and Descriptive statistics among Variables (N=291)

Variables	x1	x2	x3	y
	r (p)	r (p)	r (p)	r (p)
x2	.20 (.001)	1		
x3	.38 (.001)	.23 (.001)	1	
y	.39 (.001)	.37 (.001)	.63 (.001)	1
M±SD	3.20±0.50	2.13±0.32	2.69±0.39	3.00±0.40
Potential range	1-5	1-4	1-5	1-4
Skewness	0.04	0.69	0.17	0.40
Kurtosis	0.76	0.61	0.80	0.54

x1=Self-esteem; x2=Sexual communication for parents; x3=Sexual assertiveness; y=Safer sexual behavior.

3.3 가설적 경로모형의 적합도 검증 및 경로 계수 추정치. 효과분석

본 연구 가설적 경로모형의 적합지수는 χ^2/df 값은 11.07로 가설적 모형에 대한 χ^2/df 값은 기준에 적합하지 않았으나 또 다른 모형의 적합지수를 검증한 결과 RMSEA .05, GFI .98, AGFI .94, NFI .96로 만족하였으므로 경로를 채택하였다<Table 3>. 모형의 경로계수를 검증한 결과, 자아존중감은 성적 자기주장(C.R.=6.53, $p<.001$), 안전한 성행동(C.R.=3.27, $p=.001$) 간의 경로계수가 유의하였으며, 부모와 자녀 간의 성에 대한 의사소통은 성적 자기주장(C.R.=2.90 $p=.004$)과 안전한 성행동(C.R.=5.01, $p<.001$) 간의 경로계수가 유의하였다. 또한 성적 자기주장은 안전한 성행동(C.R.=11.61, $p<.001$) 간의 경로계수가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Fig. 1].

자아존중감은 성적 자기주장과 안전한 성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분석한 결과 자아존중감이 성적 자기주장의 직접효과는 .27($p<.001$), 안전한 성행동의 직접효과는 .18($p<.001$), 성적 자기주장이 매개되었을 경우 .22($p<.001$) 간접효과가 더해져서 총효과는 .40($p<.001$)로 상승되었다.

부모와 자녀 간의 성에 대한 의사소통은 성적 자기주장과 안전한 성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분석한 결과 성적 자기주장의 직접효과는 .19($p<.001$), 안전한 성행동의 직접효과는 .40($p<.001$), 성적 자기주장이 매개되었을 경우 .15($p<.001$) 간접효과가 더해져서 총효과는 .55($p<.001$)로 상승되었다. 또한 성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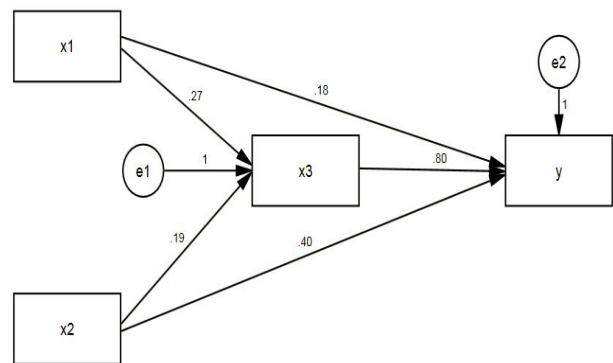
자기주장은 안전한 성행동에 직접효과는 .80($p<.001$)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에서 각 변인의 직접효과, 간접효과 및 총효과를 살펴보면 대상자의 안전한 성행동에 대한 효과는 자아존중감, 부모와 자녀 간의 성에 대한 의사소통, 성적 자기주장이 유의한 직접효과가 있었으며, 이들 변인들 중에서 안전한 성행동에 대한 총 효과가 가장 높은 변인은 성적 자기주장이었고, 다음으로 부모와 자녀 간의 성에 대한 의사소통, 자아존중감의 순이었다. 이들 변인은 안전한 성행동을 46% 설명하였다. 대상자의 성적 자기주장 대한 효과는 자아존중감, 부모와 자녀 간의 성에 대한 의사소통이 유의한 직접효과가 있었으며, 이 중 안전한 성행동에 대한 총 효과는 자아존중감, 부모와 자녀 간의 성에 대한 의사소통 순이었다. 특히 성적 자기주장은 자아존중감 및 부모와 자녀 간의 성에 대한 의사소통과 안전한 성행동 간의 관계에서 부분 매개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Table 4>.

<Table 3> Goodness for fit tests (N=291)

Goodness	χ^2/df	RMSEA	GFI	AGFI	NFI
Hypothetical path model	11.07	.05	.98	.94	.95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CFI=Comparative fit index; AGFI=Adjust goodness of fit index; NFI= Normed fit index.



[Fig. 1] A path diagram of the study.

x1=Self-esteem; x2=Sexual communication for parents; x3=Sexual assertiveness; y=Safer sexual behavior † $p<.001$.

<Table 4> Standardized Direct, Indirect, Total Effect For Path Model (N=291)

Parameter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Total effect
x1 → x3	.27*		.27*
x1 → y	.18*	.22*	.39*
x2 → x3	.19*		.19*
x2 → y	.40*	.15*	.55*
x3 → y	.80*		.80*

* p<.001.

4. 논의 및 고찰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근거로 초기 성인기 대학생의 안전한 성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고찰하여 개념적 기틀을 구성하였으며, 수집한 자료를 경로모형을 구축하여 이들 간의 인과관계를 알아보고자 실시하였다. 이에 본 연구를 통해 나타난 주요결과를 중심으로 논의 및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최종모형에서 대상자의 안전한 성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자아존중감, 부모와 자녀 간의 성에 대한 의사소통, 성적 자기주장이었다. 이는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6], 부모와 자녀 간의 성에 대한 의사소통이 개방적일수록[13] 성적 자기주장이 높을수록[9] 대상자의 안전한 성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성적 자기주장은 자아존중감과 부모와 자녀 간의 성에 대한 의사소통이 안전한 성행동에 미치는 과정에서 부분매개 역할을 하는 것과 동시에 안전한 성행동에 미치는 직접효과가 유의하게 나와 모든 예측요인들 중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나타내어 대학생의 성적 자기주장은 안전한 성행동의 중요한 보호요인임이 확인되었다.

먼저,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안전한 성행동이 높다는 것은 자아존중감이 위협 성행동의 예측요인으로 보고한 결과[6]와 유사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자아존중감과 같이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심리적 변인은 성과 관련된 행동을 하는데, 위협요인과 보호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므로 나타난 결과로 사료된다. 특히 초기 성인기는 성행동을 시작하는 시기에다 성인기의 생식과 관련된 성건강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으므로 초기 성인기 대학생의 성행동에

서 보호요인을 강화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본다. 한편 남학생을 대상으로 한 Hong과 Jung 연구[6]에서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성행동 정도가 증가하였다고 보고한 결과와 다소 상반된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차이가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성행동 도구는 안전한 성행동을 측정하는 것으로서 성행동의 빈도를 측정하는 선행연구 도구의 차이로 보여진다. 따라서 추후 성행동의 도구를 고려한 자아존중감과 안전한 성행동에 직접효과를 검증하는 반복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부모와 자녀 간의 성에 대한 의사소통이 개방적일수록, 성적 자기주장이 높을수록 안전한 성행동이 높아진다는 것은 많은 선행연구[9,13,27]와 일관되게 나타났다. 이처럼 자녀는 부모와 성에 대해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하면서 내재된 성에 대한 정체성을 확립하고 재정립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자녀는 성에 대한 자율성과 책임감이 높아지고 [16], 자신의 성건강과 관련하여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는 성행동을 직·간접적으로 배웠다고 사료된다. 또한 부모와 자녀 간의 성에 대한 의사소통은 아동기뿐만 아니라 신체적으로 완성기에 접어든 초기 성인기 대학생에도 성건강에 지대하게 영향을 미치므로 가정 내에서 성에 대한 의사소통을 중요시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초기 성인기는 안전하고 건강한 성행동을 하기에 앞서 선배, 부모, 가족 등 다양한 계층의 인생선배들과 성과 관련된 대화를 자유롭게 가질 필요가 있으며, 또한 부모나 가족은 초기 성인기 대학생의 자녀에게 성 관련 대화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성적 자기주장이 높을수록 안전한 성행동이 높다는 것은 성적 자기주장이 위협 성행동의 예측요인으로 보고한 결과[8]와 유사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성적 자기주장은 성적 상황에서 자신이 원하거나 원하지 않는 성적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을 함으로써 성과 관련된 행동에 따른 책임감을 가지고 또한 성행동을 결정하는데 주도적인 작용을 하였다고 보여진다. 이처럼 성적 자기주장은 안전한 성행동의 주요변인으로 대두됨에 따라 여학생을 대상으로 성적 자기주장 개념분석[16], 프로그램 개발과 효과를 검증한 연구가 다루어지고 있다[22]. 그러나 성과 관련된 행동은 여성으로 국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22] 남녀 모두를 대상으로 성적 자기주장을 확대한 성건강 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성적 자기주장의 유형

분석 및 이에 따른 프로그램 개발 등을 포함한 확대 연구 및 반복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한편 자아존중감과 부모와 대학생 자녀 간의 의사소통, 성적 자기주장과 같은 변인들은 대상자의 안전한 성행동과 높은 관련성을 고려한다면 성교육을 시행하는 시점에서부터 가정 및 학교에서 학습자의 심리적, 성적 자율성 등의 통합적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초기 성인기 대학생의 안전한 성행동에서도 친구집단 못지않게 여전히 부모와의 성에 대한 대화가 필요하며, 성적 자기주장 강화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의 분석결과, 대상자의 성적 자기주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변수는 자아존중감과 부모와 자녀 간의 성에 대한 의사소통이었다. 이는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부모 자녀 간의 성에 대한 의사소통이 개방적일수록 성적 자기주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 결과는 남녀 대학생의 자아존중감과 성적 자기주장의 상관성이 있다는 선행연구의 결과[13]와 일관된다. 또한 부모 자녀 간의 성에 대한 의사소통은 성적 자기주장의 예측요인이 된다는 결과[15]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에서 대학생의 성적 자기주장의 정도는 자아존중감과 부모와의 성에 대한 의사소통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아존중감과 성에 대한 대화의 중요함을 인식하고 성적 자기주장 향상을 위해서는 자아존중감과 가족 간의 성에 대한 의사소통 정도를 우선적으로 확인하고, 개인과 가족영역에서 개선 가능한 영역을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여겨진다. 또한 개인의 심리적 변인과 가족의 소통이 성적 자기주장과 관련이 높음을 고려하여, 성에 대한 관심이 대두되는 시기부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으며, 또한 초기 성인기 대학생 시기에서도 이들 변인을 고려한 성 건강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았을 때, 초기 성인기 대학생의 안전한 성행동을 위해서는 자아존중감과 이성간 의사소통, 성적 자기주장을 통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성적 자기주장은 안전한 성행동에 직접효과의 정도가 높으므로, 이에 대해 우선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성적 자기주장에 영향을 주는 자아존중감과 이성간 의사소통을 고려한 초기 성인기 대학생의 성적 자기주장을 위한 중재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며, 나아

가 이들 변인을 고려한 안전한 성행동 향상을 위한 중재를 적용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초기 성인기 대학생의 안전한 성행동의 경로분석을 통해 인과관계를 설명하였으므로, 초기 성인기 대학생의 성 건강을 위한 프로그램의 구성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들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일부 초기 성인기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초기 성인기 대학생을 일반화하는데 제한이 있다. 따라서 대상자를 확대하여 추후 반복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성적 자기주장은 다양한 사회문화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친구, 대중매체 등을 고려하지 못한 제한점이 있으므로 후속연구에서는 이들 변인을 고려한 포괄적인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초기 성인기 대학생의 안전한 성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를 고찰하여 인과관계를 경로모형으로 제시함으로써, 초기 성인기 대학생의 성건강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결과는 자아존중감과 부모와 자녀 간 성적 의사소통, 성적 자기주장이 안전한 성행동에 직접효과가 나타났으며, 자아존중감과 부모와 자녀 간 성적 의사소통은 성적 자기주장에 간접적 효과와 안전한 성행동에 간접적 효과가 나타났다. 따라서 성적 자기주장은 자아존중감과 부모와 자녀 간의 성적 의사소통과 안전한 성행동 관계에서 성적 자기주장은 부분 매개효과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초기 성인기 대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현장에서는 성적 자기주장의 중요성을 인식할 필요가 있으며, 성 건강 사정과 중재방안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는데 성적 자기주장을 고려한다면 효과적인 프로그램이 될 것이다.

REFERENCES

- [1] G. Y. Lee, I. O. Sim, "Factors affecting sexual experiences of freshmen in college, Health and Social Science", Vol.34, pp.159-182, 2013.

- [2] M. H. Nam, J. M. Kim, "The influence of internet addiction on health behavior, sexual behavior and mental health of college student,"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12, No.4, pp.367-378, 2014.
- [3] H. J. Kim, M. J. Sim, "Adolescent attitude towards sexual consciousness and intimate relationships according to internet pornography contact",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12, No.5, pp.367-376, 2014.
- [4] K. R. Shin, H. J. Park, K. E. Bae, C. Y. Ha, "Sexual behavior, health risk behaviors related to reproductive health, and sexual experiences among Korean college students", *Journal of Academy Adult Nursing*, Vol.22, No.6, pp.324-633, 2010.
- [5] S. J. Kim, S. T. Moon, H. S. Kang, "Factors influencing sexual behaviors of college students", *Korean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Academic Society*, Vol.20, No.4, pp.434-443, 2011.
- [6] S. R. Hong, Y. J. Jung, "Mediating effects of relationship satisfactions on the relationships among self-esteem, internet pornography addiction, and sexual behavior in male and female freshmen",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Vol.30, No.3, pp.69-80, 2012.
- [7] M. Y. Chang, "Nursing Student's perceptions of barriers on sexuality : Sexuality attitudes and beliefs survey," *Journal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Vol.12, No.6, pp.355-363, 2014.
- [8] Y. G. Kim, M. S. Park, "The research of college students' sexual culture in convergence age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14, No.4, pp.295-301, 2016.
- [9] Y. H. Kim, G. Y. Cho, "Effects of sexual autonomy, sexual assertiveness, sexual subjectivity on sexual behaviors among university students, *Studies on Education of Fisheries and Marine Sciences*", Vol.26, No.6, pp.1332-1341, 2014.
- [10] J. H. Lee, D. Y. Shim, M. O. Yang, H. S. Kim, "The effects of sexual behavior and self-esteem on homophobia among Korean college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13, No.1, pp.543-553, 2015.
- [11] J. H. Lee, J. H. Lee, "Convergence study on health risk behavior among Korean college students: Seoul vs. non-seoul area,"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11, No.6, pp.11-21, 2015.
- [12] J. H. Joo, H. I. Kim, "Exploration of relationship among Korean adolescents' sexual orientations, exposure to internet pornography and sexual behaviors after exposure: focused on PLS path modeling analysis," *Journal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Vol.13, No.5, pp.345-356, 2013. 85
- [13] J. H. Park, T. H. Kim, "A study on sexual behavior among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Family Relations*, Vol.10, No.1, pp.75-101, 2005.
- [14] Rosenberg M. *Conceiving the self*. New York: Basic Books: 1979.
- [15] B. M. Kim, J. S. Park, "Relationships among parent-child communication, self-esteem and sexual assertiveness for male and female university students": gender difference,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Vol.21, No.1, pp.11-22, 2015.
- [16] H. J. Kim, "Female adolescents' sexual assertiveness types Q methodology",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Vol.21, No.4, pp.272-283, 2015.
- [17] J. Y. Lee, E. S. Le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Korea sexual self-assertiveness scale for female", *Korea Journal of Counseling*, Vol.7, No.1, pp.47-62, 2006.
- [18] "Ministry of Education and Human Resources. Sexual issues to be resolved with concerted effort [Internet]". Seoul: Ministry of Education and Human Resources; 2001 [cited 2001 May 29]. Available from: <http://library.moe.go.kr>.
- [19] Y. H. Kim, S. T. Moon, H. S. Kang, "Factors Influencing on Sexual Assertiveness of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Vol.19, No.3, pp.166-175, 2013.
- [20] C. Dilorio, M. Parsons, S. Lehr, D. Adame, J. Carlone, "Measurement of safe sex behavior in adolescents and young adults", *Nursing Research*, Vol.41, No.4, pp.203-208, 1992.
- [21] M. K. Hutchinson, T. M. Cooney, "Patterns of

parent-teen sexual risk communication”: Implications for intervention, *Family Relations*, Vol.47, No.2, pp.185-194, 1998,

- [22] P. J. Morokoff, K. Quina, L. L. Harlow, L. Whitnire, D. M. Grimley, P. R. Gibson, G. J. Burkholder, “Sexual assertiveness scale for women: Development and valid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73, No.4, pp.790-804, 1997.
- [23] E. S. Lee, H. S. Kang, “A study on university students’ gender role stereotype, sexual assertiveness, sexual assault recognition, sexual violence permissiveness and sexual violence experience in dating”, *Journal of East-West Nursing Research*, Vol.20, No.1, pp.48-56, 2014.
- [24] Y. Siyan, C. P. Krishna, Y. Junko, H. P. Paula, Y. Songky, J. Masamine, “Role of risk and protective factors in risky sexual behavior among high school students in Cambodia”, *BioMedCentral Public Health*, Vol.10, No.477, pp.471-2458, 2010.
- [25] A. C. Chen, E. A. Thompson, D. Morrison-Beedy, “Multi-system influences on adolescent risky sexual behavior”, *Research in Nursing & Health*, Vol.33, No.6, pp.512-527, 2010.
- [26] M. H. Hur, H. Y. .Ahn, E. A. Kwak, K. M. Kim, J. Y. Park, J. I. R. Lee, “A study on sexual behavior, and correlation between knowledge of contraception and attitude of contraception among university students”, *Journal Korean Academy Nursing*, Vol.37, No.3, pp.267-275, 2007.
- [27] M. O. Kim, “Factors that influencing sexual behavior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4, No.8, pp.3876-3886, 2013.

서 영 숙(Seo, Young Sook)



- 2011년 8월 : 대구가톨릭대학교 간호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2015년 2월 ~ 현재 : 대구보건대학교 조교수
- 관심분야 : 만성질환, 노인간호
- E-Mail : seol657@naver.com

권 영 채(Kwon, Young Chae)



- 2012년 2월 : 인제대학교 대학원 보건행정학과 (보건행정학 박사)
- 2015년 8월 : 부산대학교 일반대학원간호학과 박사과정수료
- 2012년 2월 ~ 현재 : 가야대학교 조교수
- 관심분야 : 보건행정, 지역사회
- E-Mail : nahante55@hanmai.net